

## 사적 자의식 구인의 두 가지 심리적 특성

김영아 · 오경자<sup>†</sup> · 문혜신 · 김진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적응적, 부적응적 측면이 함께 시사되어온 사적자의식 요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생 340명을 대상으로 자의식척도(SCS), 우울(CES-D), 불안척도(STAIT)를 실시하였다. 자의식내의 하위요인인 공적자의식은 불안과, 사회불안은 우울, 불안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사적자의식은 우울 불안 모두와 약한 부적 상관을 보여 사적자의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울 불안성향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적자의식내의 2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두 요인이 확인되었으나 내용은 기존의 외국의 연구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요인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숙고능력으로, 2요인은 순간적 감정에 대한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숙고능력은 우울 및 불안과 부적상관을 보여 적응적 측면을 지닌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임상적 의미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의식은 자기(self)에 주의를 초점을 두는 개인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향이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이 구인은 Duval과 Wicklund(1972)의 사회적 태도변화를 설명하는 객관적 자기인식이론에서 출발하는데 그들은 의식적인 주위가 양방향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의식은 자신에게 향하거나 외부로 향하는데, 의식이 자기의 측면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객관적 자기인식이라 하며, 자기가 의식적인 주의

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관심의 초점이 이처럼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 행동등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자기초점화주의라고 하고(Ingram, 1990), 자의식은 이러한 자기초점화주의 개념을 개인의 특성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다.

Fenigstein등(1975)은 기질적 성향에서의 자의식의 개인차가 개인의 행동과 태도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오 경 자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  
Fax: (02)365-4354 / E-mail: kjoh@bubble.yonsei.ac.kr

발전시키면서 자의식을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사적자의식은 자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으로 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자기의 측면들에 주목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Duval과 Wicklund(1972)의 객관적 자기인식과 유사한 구인이다. 공적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기로, 자기표현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 기울이는 경향을 말한다. 사회불안은 주로 공적자의식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초점화 주의에서 발전된 자의식의 원개념에 보다 근접한 것은 사적자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자의식 연구도 이러한 사적자의식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정신병리와와의 관련성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주의집중의 대상이 되어왔는데(Ingram, 1990; Pyszczynski & Greenberg, 1987), 지나친 자기의식은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임상적으로 우울한 외래환자가 성, 나이가 동일한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초점화주의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하며(Ingram, Lumry, Cruet & Sieber, 1987), Larson과 Cowan(1988)는 준 임상 우울 집단과 자기초점화주의간의 관계를 일상생활에서 2개월간 매일 평정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Smith, Ingram, & Roth, 1985)에서는 사적자의식과 우울증상간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낮은 자존감, 부정적 기분, 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의 정확성 측면에서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적자의식과 일반화된 불안과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Hope와 Heinberg(1985)는 자의식척도와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한 연구에서 사적자의식과 일반화된 불안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외에 사적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실패경험 후 알콜소비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되는 등(Hull & Young, 1983) 주로 정신병리와 관련된 취약성으로 많이 조명되어 왔다.

사적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그들이 자신의 순간적인 정서상태에 더 반

응적이며, 자신의 행동경향이나, 정서, 감각경험을 더 잘 자각하는 등, 자신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하였다)(Scheier & Carver, 1977; Turner, Gilliland & Klein, 1981). 또한 판단시에 외부의 영향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각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였다. Scheier(1980)는 사적자의식이 높은 사람이 태도의 일관성도 높다고 하였다. 그는 처벌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적은 후, 토론을 하게 될 상대방의 태도가 자신과 상반되는 것을 미리 알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많이 바꾸는 집단은 공적자의식이 높고 사적자의식이 낮은 집단이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사적자의식은 여러측면에서 조명되고 있으며, 공적자의식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어보인다.

공적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동료집단에 대한 거부에 민감하고 타인의 거부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다. 사회적인 단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사회적 행동을 검색하는데 능숙하며, 사회성과 수줍음과도 관련되고(Cheek & Buss, 1981),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실제 인상을 예언하는데 더 정확한 것으로 보고된다. 사회불안을 공적자의식의 결과로 보는 만큼 공적자의식이 높은 대인불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으면서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Fenigstein et al, 1975). 사적자의식과 달리 공적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보는 자기의 인상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기보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와같이 그간의 연구들은 사적자의식은 공적자의식과 구별되는 자의식의 한 유형이며, 적용 및 부적응적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임을 말해준다. 이렇게 적용에 양면적 성격을 보이고, 때로 사적자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되지 못해 보이는 이유가, 사적자의식내의 두 가지 요인구조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두 요인의 상관도 .02에서 .65로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면서, 두 요인구조가 단순히 통계로 인한 인위적인 결과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으나(Lennox, Welch, Wolf, Zimmerman, & Dixon,

1987), 이후의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두 요인의 설명력을 지지하였다(Piliavin & Charng, 1988). 이들은 두 요인을 자신에 대한 숙고(self reflectiveness)와 내적상태에 대한 인식(internal state awareness)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이중 한 요인, 즉 자기숙고 능력만이 우울 및 불안감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적응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내적상태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우울 및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이며 자존감과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Anderson, Bohorn 그리고 Berrogan(1996)은 두 요인의 구조를 다시 검토하면서, 우울이나 불안과의 상관은 기존 연구결과들이 대체로 타당해보이나, 두 요인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들어 내적상태에 대한 인식이라는 요인에 3번문항(대체로 나는 자신에 대해 깊이 의식하고 있지않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기 숙고요인에 더 적절한 문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적응적인 면과 관련된 자기숙고 요인은 자기압박(self-oppression), 내적상태에 대한 인식은 적절한 자기인식(balanced self-awareness)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적자의식의 두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으며, 그동안의 연구들은 자의식이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기초점화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사적자의식 자체가 독립적으로 우울을 예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1994). 사적자의식과 우울의 상관이 보통  $r = .25-.30$ 으로 나타났던 외국의 연구들과 달리, 연구의 대상 및 측정도구를 Smith(1985)의 연구와 거의 같이 사용했는데도 대학생 집단에서  $r = .02$ 정도로 상관이 매우 낮았다. 임상적 우울집단의 경우에는  $r = .23$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나, 경로분석 결과 우울에 대한 독립적 설명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후의 정경래(1998)의 연구에서는 사적자의식과 우울감이 부분적인 상관( $r = .11, p < .05$ )을 보였으며, 이는 남학생의 경우에 한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초점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사적자의식과 불안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기는

했으나, 공적자의식이나 사회불안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작은 점을 지적하였다(김지혜와 안창일, 1991). 또한, 이 연구에서 불안환자집단이 대학생 불안집단보다 자의식 총점이 낮았고, 특히, 사적자의식 점수는 불안환자와 고불안, 저불안 대학생의 세 집단간의 비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정아(1996)는 사적자의식이 높으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상담 및 심리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양은주와 오경자(1993)의 자의식과 음주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의식 총점이 낮은 남학생들이 문제성 음주가 많아, 자의식이 오히려 음주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이러한 기제에는 성차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사적자의식이나 공적자의식 각각의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들(Cheek & Buss, 1981; Scheier, 1980; Scheier & Carver, 1977)을 고려할 때, 자의식내 하위요인은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닌 구인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전체 자의식의 특성을 자의식의 하위요인에 모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와같이 자의식, 특히 사적자의식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로는 사적자의식의 모습을 한가지로 그려내기가 어렵다. 이는 사적자의식이 개인의 성별, 문화, 성격 및 병리 등의 여러 변인과 결합되어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자의식이라는 구인 자체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자기초점화를 통해 병리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조명되기도 하지만, 사실 같은 개념이 내성을 통해 통찰을 얻는 심리치료의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감정 및 행동을 결정하는 무의식적 정신역동을 깨닫게 하는 정신분석에서는 자기인식이 필수적 치료개념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주의를 자기자신이 아닌 외부대상에 돌리게 하는 치료방법들도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의식이라는 구인이 심리학 연구의 핵심개념이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식의 개념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 문화적으로 다른 경우 재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의 사적자의식

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는 데 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2요인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다양한 측면이 있는 구인이라면 여러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그 구인을 더 세분화해서 보는 것이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적자의식의 심리적 적응상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사적자의식내의 2요인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자의식 전체의 세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각 요인의 정서적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이는 자의식의 한 요인으로서의 사적자의식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자의식의 요인구조 및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적 자의식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고, 각 요인들이 적응적인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 구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방 법

### 피험자

연세대학교의 학부생 340명 (남: 192명, 여: 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 도 구

자의식 척도. Fenigstein등(1975)이 개발한 자의식에 관한 척도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에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까지 표시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은정(1994)이 번안한 자의식 척도를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 = .85$ 였다.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우울 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최근의 우울감을 측정한다(Radolff, 1970). 총 20문항으로 자

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0-3점까지 표시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선, 문수재, 이민준, 이호영, 유계준(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alpha = .87$ 이었다.

STAI-T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Trait). Spielberg(1970)가 제작한 상태-특질 불안 척도중 특질척도로, 개인이 평소애 느끼는 걱정, 불안, 긴장의 정도를 4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김정택(1978)이 번안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alpha = .89$ 였다.

## 결 과

### 자의식의 세 요인구조와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요인구조. 자의식 척도를 주축 분해법을 적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igenvalue 1이상인 요인이 세 개로 추출되었으며, 1요인은 사적자의식, 2요인은 공적자의식, 3요인은 사회불안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는 Fenigstein등(1975)이 제시한 이래 이후의 국외 및 국내연구들(김은정, 1994; 정경래, 1998)에서 확인되어 온 것과 같은 결과이다. 또한 제4요인을 추가하였을때, 사적자의식인 1요인의 문항중 일부(13, 14, 18, 22)에 4요인의 부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적자의식이 두 요인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우울 및 불안과의 상관.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자의식 하위요인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각 척도들의 평균은 표2와 같으며, 상관이 표3에 제시되어 있다. 공적자의식은 불안과, 사회불안은 우울과 불안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사적자의식은 우울, 불안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여 사적자의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우울 불안성향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낮은 상관점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경향은 미약하게 관찰되며, 전체 대상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속성은 아닌 것 같다. 상위 20%의 높은 사적자의식 점수( $M = 34.01$   $SD = 3.97$ )를 보

인 대학생 79명의 경우에는 사적자의식과 우울이  $r = .11(p < .05)$  정도의 약한 정적상관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의식총점과 관련된 결과는 불안과의 상관만이 유의하게 나타나, 공적자의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적 자의식의 요인구조와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요인구조. 사적자의식의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축 분해법을 적용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Eigenvalue 1.0이상인 요인이 2개 관찰되었으며 총변량의 53%를 설명하였다. 2요인 구조는 확인되었으나, 기존의 연구들과 그 내용은 상

당히 달랐다. Andreason 등(1996)의 연구에서는 1, 7, 15, 18문항이 1요인으로, 3, 5, 13, 20문항이 2요인에 해당하였으며, 요인은 자기압박과 적절한 자기의식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요인은 내용상 기존연구들(Anderson 등, 1996; Piliavin & Chang, 1988)의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1요인은 주로 자신의 정체감과 같은 지속적인 속성에 대한 숙고능력과 관련된 문항들이고, 2요인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동기나 감정에 대한 의식에 관련된 문항들이다.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요인: ⑤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 2요인: ⑤나는 끊임없이 나의 동기를 검토해본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두 요인에 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내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정아(1996)의 자의식설문의 자료와 정경래(1998)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사적자의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경래(1998)의 자료는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문항들이

표 1. 자의식 척도 요인분석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5	.7356		
3	.6867		
9	.6695		
1	.6579		
13	.5840		
2	.5819		
15	.5336		
22	.5276		
18	.3220		
19		.7586	
11		.6718	
21		.6411	
14		.5703	
20		.4898	
6		.4768	
7		.4381	
17		.3959	
4			.8041
23			.7394
12			.6636
10			.5937
16			.5829
8			.5022
고유가	5.65	3.12	1.07
설명변량	24.6%	13.6%	4.7%

표 2. 각 척도의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의식	58.06	11.88
사적 자의식	23.90	5.90
공적 자의식	21.54	5.49
사회불안	12.62	5.15
우울	21.80	8.20
불안	25.98	9.70

표 3. 자의식척도 및 우울 불안척도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자의식	1.00	.72**	.85**	.57**	.07	.20**
2. 사적 자의식		1.00	.50**	-.03	-.14**	-.16**
3. 공적 자의식			1.00	.33**	.09	.22**
4. 사회불안				1.00	.23**	.41**
5. 우울					1.00	.72**
6. 불안						1.00

\*\*  $p < .01$

두 요인에 해당되었다. 최정아(1996)의 자료는 원래 사적자의식 요인에 해당한 문항이 본 연구보다 두 문항이(7번과 11번) 더 있었으므로 이를 함께 분석하였는데, 두 문항이 두 개의 요인에 하나씩 추가되었다는 점(1요인-1 3 5 7 9문항, 2요인- 11 13 15 18 20 22문항)을 제외하고는 역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울 불안과의 상관.** 사적자의식의 두 요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가 표5에 제시되어 있다. 1요인 즉,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숙고능력은 우울이나 불안과 경미한 부적상관을 보여,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숙고능력이 높은 대학생들은 우울이나 불안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덜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적으로 변하는 동기나 감정에 대한 의식으로 보인 2요인은 우울 및 불안과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사적자의식의 한 요인은 적용적 측면과, 나머지 요인은 부적용적 측면과 관련된다는 기존연구들(Anderson 등,

1996; Piliavin & Charng, 1988)과 달리, 한 요인은 다소 적용적, 나머지 요인은 중립적인 측면과 관련된다는 결과로 차이를 보였다.

## 논 의

사적자의식을 중심으로 하여 자의식 요인의 특성을 살펴본 본 연구의 중요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사적자의식이 우울 및 불안과 역상관을 보여 자의식의 다른 두 요인과는 다른 적용적 특성을 보였다. 자의식, 특히 사적자의식은 자기초점화 주의성향과 밀접히 관련되며 반추행동등을 통해 우울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자기초점화 주의가 기억 속에서 위협관련 기억을 활성화시켜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기도 한다(Wells, 198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적자의식은 오히려 적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상집단에 따라 사적자의식의 수준 및 역할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비교적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이 좋은 대학생집단에서는 개인의 내적측면에 대한 인식인 사적자의식이 정체감 측면이나 문제해결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병리적 집단에서는 병리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적자의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적용적인 역할을 하고 어느수준 이상일 때 역기능을 한다고 가정할 때, 대학생 집단에서는 이렇게 역기능적으로 높은 사적자의식을 보이는 경우가 병리적 집단보다 적기 때문에 사적자의식의 부정적 영향력이 관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적자의식이 높은 상위 20% 집단에서는 사적자의식과 우울의 상관이 약하게나마 관찰된 점은 이런 가능성을 어느정도 시사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적자의식내의 상이한 요인들로 인한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사적자의식내에 두 요인이 있어 그중 한 요인이 부적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두 요인은 국외의 기존연구와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

표 4. 사적 자의식의 요인구조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5	.7065	
3	.6783	
9	.6627	
1	.6318	
2	.5232	
22		.6182
15		.5063
18		.4948
13		.4565
고유가	4.20	1.10
설명변량	42%	11%

표 5. 사적자의식의 2요인과 우울 및 불안척도와의 상관

	우울	불안
사적1	-.20**	-.21**
사적2	-.05	-.02

\*\*  $p < .01$

인다. 내적상태에 대한 인식은 의미있는 상관 없이 자기속고 요인은 적응적인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전반적으로 더 적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관점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두 요인의 결과 역시 요인자체가 갖는 안정적인 속성이라기 보다 집단에 따라 다소 다르게 작용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사적자의식을 병리적인 특성으로만 보는 견해는 맞지 않으며, 이렇게 단일하지 않은 사적자의식의 모습에 상이한 하위요인들이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두 요인은 Anderson 등(1996)이 지적한 요인의 개념과 문항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문항들이 자기속고 개념과 내적상태에 대한 인식이라는 개념에 적절히 해당된다. 본 연구와 다른 자의식척도 번역본을 사용한 연구(최정아, 1996)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국내외 자료의 이러한 일관된 차이는 단순히 번역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적자의식에 대한 결과는 자의식의 의미에 상당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정서적 불편감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서양의 선행 연구들과 달리, 내향적인 성격의 비율이 큰 동양에서는 내성하는 경향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장려되며 내적성장을 위해 필요한 미덕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사적자의식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에서 미국 대학생들 대상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도 이러한 자의식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자신 내부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개인적 성향이 어떤 기제를 통해 적응적인 역할을 할까? Scheier(1980)는 사적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상세하고 분화된 지식을 갖고 태도의 일관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자신의 상태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숙고하는 성향이 내적경험을 잘 분화해서 인식하고 구조화하는데 기여한다면 일관된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서같은 내적경험을 인식하고 조절하는데 이러한 내성능력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정서경험에 대한 내적구조의 차원을 살펴본 연

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시사되었다(김영아, 문혜신, 김진관, 및 오경자, 1998). 사람들의 정서경험을 두가지 보편적 하위차원으로 구조화한 Russell(1978)의 모형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정서경험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선정하여 유사성을 평정시켜 다차원분석한 결과 한국인에게도 이러한 모형이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김영아, 김진관, 박수경, 오경자 및 정찬섭, 1998). 이를 사적자의식이 높고 낮은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시행한 결과, 사적자의식이 높은 대학생들이 낮은 대학생들보다, 주된 두 차원의 설명력이 높아 다양한 정서개념을 비교적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기준이 혼란되어 외부의 자극에 따라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탐색적인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확인하는 연구가 사적자의식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사기에 대한 의식을 핵심으로 하는 자의식은 이와 같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만큼 복합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구인이다. 특히 자신에 대한 주의를 증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나, 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데도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양가적 속성을 지닌 요인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속성을 구분할 수 있는 하위요인이 의미있게 관찰된다면 사적자의식은 더욱 명확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두 요인의 존재는 확인하였으나, 사적자의식이 대상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구인임을 감안할 때, 두 요인의 의미는 다양한 집단에서 두 요인과 다른 여러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지는 사적자의식의 성격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앞으로 사적자의식의 두요인이 다양한 성격적 문제와 병리를 보이는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사적자의식이 적응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를 확인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김영아, 김진관, 박수경, 오경자, 정찬섭 (1998). 정서 관련 어휘분석을 통한 내적 상태의 차원 연구. *감성과학회지* 1(1), 145-151.

김영아, 문혜신, 김진관, 오경자 (1998). 자의식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한국심리학회 '98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197-202.

김은정 (1994). 우울증상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 요인들. 3개월간의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 1-19.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김지혜, 안창일 (1991). 자기 초점화 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43-261.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선, 문수재, 이민준, 이호영, 유계준 (1991). 한국에서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의 사용: 표준화 및 요인구조에 대한 횡문화적 검토. *신경정신의학*, 30, 752-765.

양은주, 오경자 (1993).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13-125.

정경래 (1998). 자기초점화주의 성향과 우울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정아 (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Andreason, M. E., Bohon, L. M., & Berrogan, L. P. (1996). Factor structure of the private self-consciousnes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44-152.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Duval, S. & Wicklund, R. A. (1971). Opinion change and performance facilitation as a result of objective self-awar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319-342.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Hope, D. A., & Heimberg, R. G. (198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in a social phobic samp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Houston.

Hull, J. G. & Young, R. D.(1983). Self-consciousness, self-esteem, and success-failure as determinants of alcohol consumption in male social drink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097-1109.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156-176.

Ingram, R. E., Lumry, A. E., Cruet, D., & Sieber, W. (1987). Attentional process in depressive disorder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351-360.

Larson, R. J. & Cowan, G. S.(1988). Internal focus of attention and depression: A study of daily experience. *Motivation and Emotion*, 12, 237-249.

Lennox, R., Welch, L., Wolf, R., Zimmerman, B., & Dixon, W. (1987). Assessment of self consciousness.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17, 53-73.

Piliavin, J. A., & Charng, H. (1988). What is the factorial structure of the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sca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 587-595.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7). Self-regulatory perseveration and the depressive self-focusing style: A self-awareness theory of reactive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 102, 122-138.
- Radolff, L. S. (1970).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dicine*, 1, 385-390.
- Russell, J. A. (1978). Evidence of convergent validity on the dimension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52-1168.
- Scheier, M. F. (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on of personal belie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14-521.
- Scheier, M. F. & Carver, C. S. (1977). Self-focused attention and the experience of emotion. Attraction, repulsion, el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25-636.
- Smith T. W. & Greenberg, J.(1981). Depression and self-focused attention. *Motivation and Emotion*, 5(4), 323-331.
- Smith T. W., Ingram, R. E., & Roth, D. L. (1985).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Self-evaluation, affect, and life stress.. *Motivation and Emotion*, 9, 381-389.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Turner, R. G., Gilliland, L., & Kein, H. M.(1981). Self-consciousness, evalu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182-190.
- Wells, A. (1987). Conceptions of broad and narrow att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68, 417-429.

원고접수일 1999. 2. 26

수정원고접수일 1999. 5. 18

게재결정일 1999. 5. 28 ■

## **Two Psychological Correlates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Young Ah Kim, Kyung Ja Oh, Hye Shin Moon, Jin Kwa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correlates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which has shown both adaptive & maladaptive aspects. Three-hundred forty undergraduates completed the Self-Consciousness Scale(SCS),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CES-D), and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the Private self-consciousness Subscale of the SCS was correlated negatively with depression and anxiety, while the Public Self-consciousness Subscale shared positive correlation with anxiety, and the Social Anxiety Subscale , with depression & anxiety. The present study also replicated previous findings of the two-factor structure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with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each factor. In the present study, the first factor was interpreted to represent general reflectiveness of self and the second, awareness of immediate emotion. General reflectiveness of self, but not awareness of immediate emotion,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an indication of high adaptiveness.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clinical implications and cultural differences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were discussed.